

나의 비뇨의학과 1년차

서울아산병원 R2 김윤중



소개

-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21년도 졸업
- 세브란스병원 인턴 (2021.03.~2022.02.)
-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 전공의 (2022.03.~)

왜 비뇨의학과를 골랐을까?

수술을 하고 싶은
강렬한 마음

바이탈은
부담된다..

Field가 넓은 수술을
하고 싶다

다양한 시술,
수술을 할 수
있으며 전망이 좋다

1년차 초반

수많은 병동콜

부담되는 응급실 콜

주치의라는 부담감

비뇨의학에 대한 매우 부족한 지식

1년차 초반

- RNx
- PNx
- RCx
- DNx
- URS
- RIRS
- TURB
- TURP
- TURC
- VIU
- RALP
- RRP
- Open? Lapa? HALS? Robot?
- Cystoscope
- Cystography
- VCUG
- AGP
- RGP
- RGU
- DTPA
- MAG3

봄 학회



- 따스한 부산에서
잠시나마의 휴식
- 교수님, 선배 전공의들과
알아가는 시간

1년차 중반

- 그래도 용어만 익숙하다..
- 아직 미숙한 환자 파악
- 서서히 수술방, 시술방 투입..
- 더운 여름과 함께하는 결석 환자들..

가을학회

- 가을학회는 서울에서
- 조금씩 학회 주제들이 눈에 들어온다



1년차 후반

서서히 익숙해지지만 아직은 어려운 전공의 일들

수술방, 시술방에 조금씩 익숙

하지만..보릿고개가 시작된다..

외래..응급실..수술방..병동.. 몸이 네개여도 모자란다!!

새로운 1년차 선생님들이 너무 보고싶다..

파견근무



- 서울과 지방 의료의 차이
- 휴식을 즐기길 기대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음
- 다른 부분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음



1년차 초반과 후반의 비교



- 1년차 초반
 - 병동 콜을 모르겠다
 - 환자들의 질문이 무섭다
 - 언제 나는 성장하는가
- 1년차 후반
 - 병동 콜을 받으면 기록을 보면서 고민하는 습관이 생긴다
 - 아는 것을 물어보는 환자들의 질문에 말이 많아진다
 - 성장하려면 한참이다..

질문

무엇이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